

한국어 교재의 경어법 사용 분석

- 1단계 교재를 중심으로 -

이 은 경*

I. 머리말

본고는 한국어 교재의 대화 텍스트에 사용된 경어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어에서 경어법은 매우 중요한 문법 범주이므로 외국인이 경어법 관련 요소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실제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의 대화 텍스트에 경어법 관련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재 중에서는 1단계 교재를 검토하였다. 1단계 교재는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성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기본적인 문법 체계나 문장 구조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재이다. 따라서 1단계 교재에서 경어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해 보면 각 교재에서 경어법 관련 요소 가운데 어떠한 것을 기본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본고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한국어 교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¹⁾

한국어문화연수부 편, 한국어회화 1, 개정2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2.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1, 개정증보판, 문진미디어, 2000.²⁾

* 서울대 강사

1) 이 교재들을 앞으로는 기술의 편의상 [고], [세], [옌], [이]로 표시하기로 한다. [세]는 4단계 중의 1단계, [고], [옌], [이]는 6단계 중의 1단계 교재이다.

2) 판권지에 '초판 2쇄 발행 2002년 5월 15일'로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간행 연도를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한국어 1,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말이 트이는 한국어 I (Student Book), 이화여자대학
 교 출판부, 1998.

위의 한국어 교재는 10~30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과는 본문, 문법, 어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고는 그 가운데 본문 부분을 검토하였다.³⁾ 각과에서 배울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 본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어법은 실제로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주고받을 때 적극적으로 실현되므로 본문 중에서도 대화 텍스트를 검토하였다.⁴⁾ 본고에서 검토한 자료의 분량은 다음과 같다.⁵⁾

	[고]	[서]	[연]	[이]	합
대화텍스트	23	25	40	47	135
문장	193	195	251	717	1,356
어절	590	638	765	2,589	4,582

〈표1〉 검토 대상 자료의 분량

한국어 학습자가 1단계 한국어 교재를 학습하게 되는 시간은 네 교재 모

알 수 없으나 영문으로 'First Edition 2000'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서문'에 '개정증보판'이라는 설명이 있어 개정증보판의 간행연도를 2000년으로 간주하였다.

- 3) 각 교재의 과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본문 부분은 고딕으로 표시하였다). [고](총20과) 본문, 새단어, 기본문형, 연습, 새단어; [서](총30과) 본문, 발음, 문법, 이휘와 표현, Notes, 연습; [연](총10과) 본문, 문법, 유형 연습; [이](총15과) 준비합시다, 해 볼시다, 익기
- 4)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의 대화 참여자가 자유로이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바꾸어 가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구현정 2001:27)"이므로 본고에서는 이 조건에 맞는 텍스트를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자연 발화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가상 대화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국어 교재의 본문은 대체로 대화 텍스트였으나, 문어체 문어 텍스트인 경우와 구어체 구어 텍스트라 하더라도 대화의 상황 및 참여자 요인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5) [서]는 한 과의 본문에 대화 텍스트가 하나만 제시되어 있지만, [연과 이]는 여러 개 제시되어 있다. [고]는 대체로 대화 텍스트가 하나지만 몇몇 과는 여러 개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교재마다 본문에서 대화 텍스트를 제시한 방식이 다르다.

두 1일 4시간, 1주 5일, 총 10주 200시간 정도로 같다. 그런데 〈표1〉의 결과를 보면 1단계 교재에 나타난 대화 텍스트, 문장, 어절의 수가 교재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화 텍스트의 수는 [이] > [연] > [서] > [고]'의 순이므로 [이]에서 대화 텍스트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고, [고]에서 가장 적게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화 텍스트 한 편에 포함되어 있는 평균적인 문장의 수는 [이] 15.3 > [고] 8.4 > [서] 7.8 > [연] 6.3', 텍스트 한 편에 포함된 평균적인 어절 수는 [이] 55.1 > [고] 25.7 > [서] 25.5 > [연] 19.1'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대화 텍스트의 수도 가장 많고, 텍스트 한 편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 수나 어절 수도 가장 많아 동일한 시간 동안 가장 많은 분량의 대화 텍스트를 본문에서 접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1단계 한국어 교재의 대화 텍스트에서 경어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경어법은 문법 형태소에 의한 경어법이 대표적이다.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청자에 대한 존대를 표시하는 상대 경어법과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에 대한 존대를 표시하는 주체 경어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외에 명사, 대명사, 동사, 조사 등의 어휘 요소를 사용하여 존대를 표시하는 어휘적 경어법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대 경어법, 주체 경어법, 어휘적 경어법의 항목으로 나누어 한국어 교재의 경어법 사용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상대 경어법 사용에 대한 분석

한국어의 상대 경어법은 청자를 존대하는 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합쇼체, 해요체, 하오체, 하게체, 해체, 해라체'의 여섯 등급으로 나뉜다. 1단계 한국어 교재의 대화 텍스트에서는 이 가운데 '합쇼체, 해요체, 하오체, 해체'의 네 등급이 사용되었으나 주로 사용된 것은 합쇼체와 해요체이다. 각 교재에서 상대 경어법이 등급별로 사용된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⁶⁾

6) 표에 제시된 숫자는 해당 경어법 등급으로 문장이 실현된 횟수이다. 예를 들어 '합쇼체 8'의 경우, 합쇼체 문장이 8회 사용되었다는 의미이다. 사용 비율은 각 교재의 전체 문장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실현되었는지를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고]	[서]	[연]	[이]	합
합소체	8	64	153	380	605
비율(%)	4.2	32.8	61.0	53.0	44.6
해요체	183	125	81	309	698
비율(%)	94.8	64.1	32.3	43.1	51.5
하오체	2	6	17	24	49
비율(%)	1.0	3.1	6.8	3.4	3.6
해체	0	0	0	4	4
비율(%)	0	0	0	0.6	0.3

〈표2〉 상대 경어법의 등급별 사용 비율

〈표2〉를 보면 해요체보다 합소체를 더 많이 사용한 교재는 [연]과 [이]이고, 합소체보다 해요체를 더 많이 사용한 교재는 [고]와 [서]이다. 합소체와 해요체의 사용 비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고]이다. 해요체가 94.8%, 합소체가 4.2%로 거의 모든 대화에서 해요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는 합소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합소체와 해요체를 고르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⁷⁾

합소체와 해요체의 사용 비율이 교재마다 다른 것은 한국어의 경어법에서 어떤 등급이 더 기본적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교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고]에서는 해요체가 기본적인 등급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전체 대화 텍스트를 해요체 위주로 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교재에서는 해요체와 합소체 둘 다를 기본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서]에서는 해요체에, [연]에서는 합소체에 좀 더 비중을 두었으며 [이]에서는 둘 다를 비슷한 비중으

[고]의 합소체 8회는 [고]의 대화 텍스트에 사용된 전체 193 문장에서 4.2%의 비율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7) 1단계 한국어 교재에서는 하오체로 청유형의 '-ㅂ시다'만 사용되었는데 각 교재에 골고루 나타난다. 한편 [이]에서는 '아주 재미있었는데...'와 같이 문장을 완전히 끝마치지 않은 경우가 3회, '아, 김수경 씨.'의 경우가 1회 나타나는데 이를 문장은 상대 경어법 등급으로는 해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박영순(2001:77)에서는 외국 어로서의 한국어 경어법 1단계에서는 '-습니다'와 '-요'만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을 따를다면 하오체나 해체의 예들이 1단계 교재에 등장해도 좋은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로 다루어 대화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실제 한국어 대화에서는 해요체의 사용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처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을 위한 1단계 한국어 교재에서는 합쇼체와 해요체의 비율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상대 경어법의 실현 양상은 언어 외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경어법 형식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데 작용하는 언어 외적 요소들을 경어법 사용의 '사회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경어법 사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러한 사회적 요인은 '상황 요인'과 '참여자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상황 요인이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특성을 가리키고 참여자 요인이란 경어법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적 특성이나 개별적 특성을 가리킨다 (이정복 1998:351). 본장에서는 대화의 상황 요인과 대화의 참여자 요인으로 나누어 상대 경어법과의 관련 양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⁸⁾ 상대 경어법의 등급 중에서는 합쇼체와 해요체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하오체와 해체는 일정한 경향을 추출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대화의 상황 요인

대화의 상황 요인은 우선 대화 참여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과 서로 다른 공간에서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상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상황 요인의 면에서는 전자를 근접 대화 상황, 후자를 원거리 대화 상황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대화의 유형 면에서 근접 대화, 원거리 대화로 부를 수 있다.⁹⁾ 본절에서는 상대 경어법의 사용이 근접 대화 상황과 원거리

8) 대화의 장소, 주제, 대화 참여자의 관계 등을 교재의 그림이나 대화 텍스트 앞에 제시되어 있는 지문, 대화 텍스트의 내용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와 [서]는 지문 없이 간략한 그림만 제시해 놓았고, [연]은 간혹 간략한 지문을 제시해 놓았으나 그림 정보가 전혀 없다. 반면 [이]는 대화 텍스트마다 상세한 지문과 그림이 제시되어 있고, 그림에 배경이나 인물이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 대화 상황을 파악하기가 가장 수월하였다.

대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지,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단계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대화 텍스트는 대부분 근접 대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원거리 대화 상황 가운데 전화를 통해 이루어진 대화도 포함되어 있다. 상황 요인에 따른 텍스트 및 문장의 구성 비율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상황요인	[고]	[서]	[연]	[이]	합
텍스트 비율(%)	근접대화	19 82.6	24 96.0	36 90.0	37 78.7	116 85.9
	전화대화	4 17.4	1 4.0	4 10.0	10 21.3	19 14.1
문장 비율(%)	근접대화	174 90.2	186 95.4	223 88.8	559 78.0	1142 84.2
	전화대화	19 9.8	9 4.6	28 11.2	158 22.0	214 15.8

〈표3〉 상황 요인의 구성 비율

〈표3〉을 보면 1단계 한국어 교재에서는 전체적으로 근접 대화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 텍스트가 85.9%, 전화 대화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 텍스트가 14.1%의 비율을 보이므로, 근접 대화 상황의 대화 텍스트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근접 대화 상황에 사용된 문장은 전체 발화의 84.2%, 전화 대화 상황에 사용된 문장은 전체 발화의 15.8%이다.

교재별로 검토해 보면 근접 대화 상황과 전화 대화 상황의 구성 비율이 다르다. [서]는 교재 가운데 근접 대화 상황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이]는 전화 대화 상황의 비율이 가장 높다. 실제 생활에서 전화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1단계 교재에 전화 대화 상황의 텍스트를 어느 정도 포함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9) 근접 대화와 원거리 대화의 구분에 대해서는 박용의(2001:76)을 참조할 수 있다.

그러면 1단계 한국어 교재에서는 근접 대화 상황과 전화 대화 상황이라는 상황 요인이 상대 경어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고]		[서]		[연]		[이]		합
	근접	전화	근접	전화	근접	전화	근접	전화	
합소체	0	58	139	290					487
비율(%)	0	31.2	62.3	51.9					42.6
해요체	172	11	122	69	260				623
비율(%)	98.9	57.9	65.6	30.9	46.5				54.6
하오체	2	0	6	15	6				29
비율(%)	1.1	0	3.2	6.7	1.1				2.5
해체	0	0	0	0	3				3
비율(%)	0	0	0	0	0.5				0.3

〈표4〉 상황 요인과 상대 경어법

상대 경어법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합소체의 사용을 근접 대화 및 전화 대화라는 상황 요인과 관련시켜 보면 대체로 근접 대화 상황보다 전화 대화 상황에서 사용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의 경우 합소체가 근접 대화 상황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전화 대화 상황에서만 사용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반면 해요체의 사용 비율은 대체로 전화 대화 상황보다 근접 대화 상황에서 더 높다.¹⁰⁾

한편 교재별로 비교해 보면 근접 대화 상황과 전화 대화 상황에 따라 사용 비율에 차이를 보인 정도는 합소체의 경우 '[고] > [서] > [연] > [이]'의 순이고, 해요체의 경우 '[고] > [서] > [이] > [연]'의 순이다. 따라서 상황요인이 상대 경어법의 등급을 결정하는 데 큰 변수로 작용한 것은 [고]와 [서]라고 할 수 있다.

〈표4〉의 결과는 실제 대화의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10) 그러나 [연]은 합소체의 경우 근접 대화 상황에서 사용 비율이 더 높고 해요체의 경우 전화 대화 상황에서 사용 비율이 더 높아 다른 교재들과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전화를 매개로 하여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는 처음에 전화를 걸거나 받았을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정중한 말투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난 후에도 상대방이 존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대화보다는 더 정중한 표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합쇼체의 사용 비율이 근접 대화 상황보다는 전화 대화 상황에서 더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자연 발화의 전화 대화에서 어느 정도로 정중해지는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한국어 교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대화의 참여자 요인¹¹⁾

1) 대화 참여자의 친분 요인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가, 아니면 처음 보는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가 하는 점은 상대 경어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친구나 동료, 선생님 등은 '아는 사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고,¹²⁾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누게 되는 사람, 물건을 사거나 주문하는 것과 관련하여 접하게 되는 사람, 은행이나 우체국의 직원 등은 '낯선 사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화 참여자의 친분 요인을 아는 사람과 낯선 사람으로 나누어 이러한 요인이 상대 경어법의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11) 한국어 교재의 대화 텍스트에는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2인 대화가 대부분이나, 때로는 세 사람 이상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등장한다. 3인 대화 텍스트는 [고]에 2회, [세]에 1회, [이]에 5회 나타났고, 5인 대화 텍스트는 [세]에 1회 나타났다. 그러나 1단계 한국어 교재에 너무 많은 대화 참여자가 등장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대화 참여자의 수는 2~3인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아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친분의 정도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1단계 한국어 교재에서는 합쇼체만 사용하는 대화 상황이나 합쇼체와 해요체를 섞어서 쓰는 대화 상황이 많으므로 친분의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서로 알고는 있으나 특별히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관계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대화 참여자의 친분 요인에 따라, 아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사용한 문장과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사용한 문장의 구성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친분 요인	[고]	[서]	[연]	[이]	합
아는 사람 비율(%)	150 77.7	137 70.3	173 68.9	401 55.9	861 68.2
낯선 사람 비율(%)	43 22.3	58 29.7	78 31.1	316 44.1	495 31.8

〈표5〉 친분 요인의 구성 비율

〈표5〉를 보면 1단계 한국어 교재에서는 아는 사람과 나눈 대화가 낯선 사람과 나눈 대화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재 가운데 아는 사람과 나눈 대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고]이고, 낯선 사람과 나눈 대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이]이다. 1단계 한국어 교재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낯선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많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한국어 교재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즉 한국어 교재를 구성할 때 아는 사람과의 대화와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단계별로 어느 정도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면 대화 참여자의 친분 요인이 상대 경어법의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고]		[서]		[연]		[이]		합	
	아는		아는		아는		아는		아는	
합소체	0		46		88		162		296	
비율(%)	0		33.6		50.9		40.4		34.4	
해요체	148		85		69		213		515	
비율(%)	98.7		62.0		39.9		53.1		59.8	
하오체	2		6		16		23		47	
비율(%)	1.3		4.4		9.2		5.7		5.5	
해체	0		0		0		3		3	
비율(%)	0		0		0		0.7		0.3	

〈표6〉 친분 요인과 상대 경어법

〈표6〉의 결과를 보면 [서]에서는 아는 사람과의 대화나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모두 합소체보다 해요체가 우세하게 사용되었으며 사용 비율 면에서도 아는 사람과의 대화나 낯선 사람의 대화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따라서 [서]에서는 대화 참여자의 친분 요인이 상대 경어법의 사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교재들은 아는 사람과의 대화와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상대 경어법의 사용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에서는 아는 사람과의 대화나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모두 해요체가 우세하게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아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합소체가 18.6%나 사용되었고, 아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해요체의 사용 비율이 17.3% 높았다. 반면 [연]의 경우는 아는 사람과의 대화나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모두 합소체가 우세하게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합소체의 사용 비율이 32.4% 높았고, 아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해요체의 사용 비율이 24.5% 높았다. [이]의 경우는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합소체가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고, 아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해요체가 높은 비율로 사용되어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¹³⁾

결국 상대 경어법의 등급을 선택할 때 대체로 대화 참여자의 친분 요인

13) 한편 하오체나 해체는 낯선 사람과의 대화보다 아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합소체의 사용 비율이 높고 아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해요체의 사용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 발화의 대화 텍스트와 일치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는 사람과의 대화이냐 낯선 사람과의 대화이냐에 따라 상대 경어법의 실현 양상이 달라진 정도는 교재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대화 참여자의 친분 요인이 상대 경어법의 사용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 것은 [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대화에서는 대화 참여자 요인에 따라 상대 경어법의 실현 양상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하여 한국어 교재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2) 대화 참여자의 성별 요인

대화 참여자의 친분 요인뿐만 아니라 대화 참여자의 성별 요인도 상대 경어법의 사용과 관련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화 참여자의 성별 요인이 상대 경어법의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로 한다.¹⁴⁾ 교재별로 남성 발화와 여성 발화의 구성 비율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¹⁵⁾

-
- 14) 한국어 교재에서는 그림 속의 모습이나 이름으로 대화 참여자의 성별을 비교적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이름이 '수미'로 표시되어 있으면 여성으로, '철수'로 표시되어 있으면 남성으로 간주하였다. 그림이 있는 경우는 성별을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화 참여자가 '직원'과 같이 표시되어 있고 그림 정보도 없어 성별을 추측할 수 없는 경우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15) 한국어 교재는 대체로 '남녀 간의 대화' > '남성 간의 대화' > '여성 간의 대화'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 남녀 간의 대화 텍스트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연] 70.0%, [서] 68.2%, [고] 60.9%, [이] 51.1%). 남녀 간의 대화에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걸면서 시작한 경우가 [연] 67.9%, [고] 64.3%, [이] 62.5%, [서] 40.0%로 [서]를 제외하면 남성이 대화를 시작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성별 요인	[고]	[서]	[연]	[으]	합
남성	119	88	131	398	736
비율(%)	64.3	54.0	57.5	57.8	58.2
여성	66	75	97	291	529
비율(%)	35.7	46.0	42.5	42.2	41.8

〈표7〉 성별 요인의 구성 비율

〈표7〉을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 발화가 여성 발화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남성 발화의 비율이 여성 발화의 비율보다 높은 정도는 [고] > [으] > [연] > [서]의 순이므로 남성 발화와 여성 발화의 비율이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것은 [고]이고, 가장 적게 차이 나는 것은 [서]이다.

그리면 대화 참여자의 성별이 상대 경어법을 결정하는 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고]	[서]	[연]	[으]	합
	남성	남성	남성	남성	남성
합소체	4	22	90	258	374
비율(%)	3.4	25.0	68.7	64.8	50.8
해요체	114	63	33	119	329
비율(%)	95.8	71.6	25.2	29.9	44.7
하오체	1	3	8	19	31
비율(%)	0.8	3.4	6.1	4.8	4.2
해체	0	0	0	2	2
비율(%)	0	0	0	0.5	0.3

〈표8〉 성별 요인과 상대 경어법

〈표8〉을 보면 [고]와 [서]는 성별 요인이 상대 경어법을 선택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에서는 남성 발화의 95.8%, 여성 발화의 93.9%가 해요체이고, [서]에서도 남성 발화의 71.6%, 여성 발화의 70.7%가 해요체이므로 성별 요인에 의한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연]과 [이]에서는 합소체의 경우 남성 화자가, 해요체의 경우 여성 화자가 더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상대 경어법 등급을 선택하는 데 성별 요인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용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연]의 경우 남성은 해요체보다 합소체를 43.5% 정도 더 사용하였고 여성은 합소체보다 해요체를 7.3% 정도 더 사용하였으므로, 남성 화자의 경우는 합소체를 훨씬 더 선호하였다고 할 수 있고 여성 화자의 경우는 해요체를 조금 더 선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서는 남성은 합소체를 64.8%, 여성은 해요체를 64.3% 선택하였으므로 상대 경어법 등급의 선택에서 상당히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남성 화자는 합소체를, 여성 화자는 해요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였음을 보여 준다. 실제로 여성의 발화에서 해요체가 우세하게 사용된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는데,¹⁶⁾ 이러한 사용 양상이 한국어 교재의 대화 텍스트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기타 요인

한국어 교재의 대화 텍스트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대체로 대화 참여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과 그 학생의 친구 및 동료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대화 참여자의 상호 관계가 이와는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화 참여자의 신분이나 지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므로 대화 참여자의 신분이나 지위 요인에 따라 상대 경어법의 사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한국어 교재의 대화 텍스트에는 손님과 직원의 대화로 구성된 텍스트들이 있다. 이 경우 직원과 손님이라는 대화 참여자의 요인이 상대 경어법의 사용과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¹⁷⁾

16)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민현식(1996), “국어의 성별어 연구사”, 사회언어학 4:2, 사회언어학회; 박창원(1999), “여성어 연구사”, 언어와 여성의 사회적 위치, 태학사.

17) ‘직원’의 범주에는 ‘가게 주인, 찻집 종업원, 음식점 종업원, 우체국 직원, 은행 직원, 택시 운전사, 전화 교환원, 간호사, 극장 직원, 배달원, 백화점 직원, 여행사 직원’ 등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을 모두 포함시켰다.

	[고]		[서]		[연]		[이]		합	
	직원	손님								
합소체	1	1	8	1	14	1	79	47	102	61
비율(%)	9.1	9.1	27.6	11.5	93.3	91.7	77.5	45.6	65.0	43.6
해요체	10	10	21	19	1	10	23	56	55	78
비율(%)	90.9	90.9	72.4	55.6	6.7	9.1	22.5	34.1	35.0	55.7
하오체	0	10	0	10	0	10	0	0	0	10
비율(%)	0	10	0	10	0	10	0	0	0	10

〈표9〉 직원/손님 요인과 상대 경어법

〈표9〉를 보면 [고]의 경우에는 직원과 손님이라는 대화 참여자의 요인이 상대 경어법의 등급을 선택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의 경우는 직원과 손님 모두 합소체보다 해요체 사용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직원의 경우 합소체 사용 비율이 13.3% 더 높고 손님의 경우 해요체 사용 비율이 13.3% 더 높아 직원과 손님이라는 요인이 약간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연]의 경우는 직원과 손님 모두 해요체보다 합소체 사용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합소체의 사용 비율을 보면 직원이 조금 높다.

그런데 [이]의 경우는 직원과 손님이라는 요인이 상대 경어법의 등급을 선택하는 데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경우는 합소체를 해요체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고, 손님의 경우는 해요체를 합소체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손님보다 직원이 더 정중한 말투를 구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경향을 [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직원과 손님 요인 이외에 선생과 학생 요인을 설정할 수 있다. 즉 선생과 학생이 대화를 나눌 때 선생의 상대 경어법 선택과 학생의 상대 경어법 선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 교재를 검토한 결과 그러한 차이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⁸⁾

18) 이 경우는 예가 적어 비율로 표시하지는 않고 해당 발화의 수만 제시하였다.

	[고]		[서]		[연]		[이]		합	
	선생	학생	선생	학생	선생	학생	선생	학생	선생	학생
합소체	0		6	0	8	0	4	0	18	0
해요체	12	0	0	0	0	0	3	0	15	0

〈표10〉 선생/학생 요인과 상대 경어법

〈표10〉을 보면 [고]에서는 선생과 학생이 서로 해요체를 사용하였고 [서]와 [연]에서는 서로 합소체를 사용하였으므로 선생과 학생이라는 요인이 상대 경어법의 등급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에서는 선생과 학생이 서로 합소체와 해요체를 섞어서 사용하였으나 선생보다는 학생이 합소체를 조금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발화 상황에서는 선생보다 학생이 더 정중한 상대 경어법 등급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경향이 한국어 교재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연장자와 연하자가 대화를 나눌 경우 상대 경어법의 사용에 차 이를 보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한국어 교재에 등장하는 대화 참여자의 연령대는 대체로 20-30대의 청년층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연장자와 연하자의 대화 상황이 별로 없다.¹⁹⁾ 다만 [연]에는 연장자와 연하자가 나누는 대화임을 알 수 있는 대화 상황이 5회 등장한다. 즉 '존슨'이라는 대화 참여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 어머니, 하숙집 아주머니, 아이'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과 각각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있다. 이 경우는 연장자와 연하자의 발화를 구분하여 상대 경어법 사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19) 실제 발화에서는 연장자와 연하자가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한국어 교재의 대화 참여자 요인을 좀더 다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1단계 교재라서 요인을 단순화하였다면 2단계 이후의 교재에는 그러한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연장자 노년층	연장자 중년층	연장자 청년층	연장자합	
합소체	7	0	2	9	
해요체	1	6	1	8	

〈표11〉 연장자/연하자 요인과 상대 경어법

〈표11〉을 보면 예가 적어 일정한 경향을 이끌어 낼 수는 없지만 중년층이 연장자인 경우와 소년층이 연하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해요체보다 합소체를 더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⁰⁾ 따라서 연장자와 연자라는 요인이 상대 경어법의 사용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¹⁾ 그러나 실제 발화에서는 연자가 연장자에게 말할 때 더 정중한 등급의 상대 경어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양상이 교재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주체 경어법 사용에 대한 분석

주체에 대한 존대를 표시하는 선어말 어미 ‘-시’는 대화 텍스트에서는 청자가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자에 대한 존대를 표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 경우 상대 경어법을 표시하는 종결 어미와 결합하여 청자를 존대하는 등급을 더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선어말 어미 ‘-시’가 합소체의 종결 어미와 결합하면 ‘-십니다, -십니까, -십시오’ 등의 형태로 실현되고,²²⁾ 여기에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이나 ‘-겠’이 결합되면 ‘-셨습니다, -셨습니까, -시겠습니다, -시겠습니까’ 등으로 실현된다. 청자가 주체인 경우 이러한 형태들은 합소체보다 청자를 존대

20) 중년층의 경우 둘 다 여성이라는 점, 소년층의 경우 합소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 해요체를 선택하는 데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21) 노년층이 청년층에게 합소체를 많이 사용한 것은 좀 어색하게 느껴진다. 상대방이 낯선 청년인 경우에도 ‘가방 여기 놓으십시오./사람이 많으니까 문 쪽으로 가십시오.’처럼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2) ‘-십니다, -십니까’의 경우는 ‘-시’가 결합되지 않은 ‘-ㅂ니다, -ㅂ니까’로 사용되나 ‘-십시오’의 경우는 ‘-ㅂ시오’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하는 정도가 더 높음을 나타낸다.

(1) 가. 네 개 주십시오. [서12]²³⁾

나.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6-1]

다. 뭘 잘수시겠습니까? [연3-2]

한편 선어말 어미 '-시-'가 해요체의 종결 어미와 결합하게 되면 '-세요'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선어말 어미 '었-'이나 '-겠-'과 결합하여 '셨어요, -시겠어요' 등의 형태로 실현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들은 해요체보다는 존대하는 정도가 높고 합쇼체보다는 존대하는 정도가 낮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2) 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13]

나. 수영을 잘 하세요? [연9-4]

다.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서27]

청자가 주체인 경우 선어말 어미 '-시-'가 합쇼체의 종결 어미에 결합하여 사용된 것을 '하십시오'형, 해요체의 종결 어미에 결합하여 사용된 것을 '하세요'형이라 부른다면 그 사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²⁴⁾

23) '[서12]'는 [서]의 12파에 제시된 대화 텍스트이고, '[이6-1]'은 [이]의 6파에서 첫번째로 제시된 대화 텍스트임을 나타낸다.

24) 표에서 '/' 뒤에 제시한 숫자는 해당 교재에서 해당 경어법이 사용된 횟수이다. 예를 들어 [서] '5/64'의 경우는 [서] 전체에서 합쇼체 발화가 64회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5회는 '주체=청자'의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되어 사용되었다는 의미이다.

	[고]	[서]	[연]	[이]	합
'하십시오'형 비율(%)	0/8 0	5/64 7.8	36/153 23.5	48/380 12.6	89/605 14.7
'하세요'형 비율(%)	29/183 15.8	33/125 26.4	11/81 13.6	50/309 16.2	123/698 17.6

〈표12〉 '하십시오'형과 '하세요'형의 사용 비율

〈표12〉를 보면 청자가 주체인 경우 [고], [서], [이]에서는 주체를 존대하는 선어말 어미 '-시-'가 합쇼체보다는 해요체의 어말 어미에 결합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요체는 합쇼체에 비하여 청자를 존대하는 정도가 낮으므로 청자를 더 존대하려면 합쇼체를 사용해야 하지만 합쇼체를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요체에 선어말 어미 '-시-'를 결합시킨 '하세요'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십시오'형보다 '하세요'형이 많이 사용된 정도는 '[서] > [고] > [이]'의 순이므로 [서]에서 '하세요'형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연]은 해요체보다 합쇼체에 선어말 어미 '-시-'를 결합시켜 사용한 비율이 더 높아 대조적이다. '하십시오'형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였고 합쇼체 사용 비율도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어 교재 중에서는 [연]이 청자를 존대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발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화의 상황 요인과 주체 경어법 선어말 어미 '-시-'의 사용은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 살펴볼 수 있다. 상대 경어법의 경우는 근접 대화보다 전화 대화에서 더 정중한 말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선어말 어미 '-시-'의 경우는 어떠한지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고]		[서]		[연]		[이]		합
	근접	원	근접	원	근접	원	근접	원	
'하십시오'형 비율(%)	0 0		5/58 8.6		33/139 23.7		37/290 12.8		75/487 15.4
'하세요'형 비율(%)	23/172 13.4		31/122 25.4		8/69 11.6		34/260 13.1		96/623 15.4

〈표13〉 상황 요인과 '주체=청자' 경어법

〈표13〉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합쇼체에 '-시-'가 결합된 '하십시오'형은 근접 대화에서 더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고, '해요체'에 '-시-'가 결합된 '하세요'형은 전화 대화에서 더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가 합쇼체를 더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경우는 근접 대화에 많고, 해요체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경우는 전화 대화에 많음을 알 수 있다.

사용 비율 면에서는 '하십시오'형보다 '하세요'형의 사용에서 근접 대화인가 전화 대화인가 하는 것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하였다. 교재별로 상황 요인에 따른 '하세요'형의 사용 비율을 비교하면 [서] > [고] > [이] > [연]의 순으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대화의 상황 요인이 '-시-'의 사용에 관련된 정도는 합쇼체보다 해요체의 경우가 더 높고, 교재별로는 [서]의 경우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화 참여자 요인 가운데 친분 요인과 주체 경어법 선어말 어미 '-시-'의 사용은 어떠한 상관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사람과의 대화보다는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시-'를 사용하여 청자를 더 높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실제로는 어떠한지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고]	[서]	[연]	[이]	합
	아는	아는	아는	아는	아는
'하십시오'형 비율(%)	0	3/46 6.5	10/88 11.4	10/162 6.2	23/296 7.8
'하세요'형 비율(%)	13/148 8.8	9/85 10.6	7/69 10.1	22/213 10.3	51/515 9.9

〈표14〉 친분 요인과 '주체=청자' 경어법

〈표14〉의 결과를 보면 아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보다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시-'가 더 높은 비율로 결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낯선 사람과 말을 할 때는 합쇼체보다 해요체에 '-시-'를 결합시켜 사용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교재별로 검토해 보면 아는 사람과의 대화보다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시-'를 더 많이 결합시킨 정도는 '하십시오'형의 경우는 '[연] 28.6% > [이] 11.2% > [서] 4.6%'의 순이다. 합쇼체에 '-시-'를 결합시켜 사용할 때 [연]에서는 아는 사람인가 낯선 사람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고, [서]에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세요'형의 경우는 '[서] 49.4% > [고] 36.9% > [연] 23.1% > [이] 18.9%'의 순이다. 해요체에 '-시-'를 결합시켜 사용할 때 [서]에서는 아는 사람인가 낯선 사람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고, [이]에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화 참여자의 친분 요인이 '-시-'의 사용에 관련된 정도는 합쇼체의 경우 [연]이 가장 높고, 해요체의 경우 [서]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화의 참여자 요인 가운데 성별 요인과 주체 경어법 선어말 어미 '-시-'의 사용은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지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		[서]		[연]		[이]		합	
	남성		남성		남성		남성		남성	
'하십시오'형 비율(%)	0/4 0		2/22 9.1		17/90 18.9		31/258 12.0		50/374 13.4	
'하세요'형 비율(%)	18/114 15.8		14/63 22.2		3/33 9.1		10/119 8.4		45/329 13.7	

〈표15〉 성별 요인과 '주체=청자' 경어법

〈표15〉의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 발화에서의 '-시-' 결합 비율이 남성 발화에서의 '-시-' 결합 비율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십시오'형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한 비율을 교재별로 보면 '[연] 3.6% > [이] 1.4% > [서] 0.9%'이고 '하세요'형을 남성보다 여성이 더 사용한 비율을 교재별로 보면 '[이] 12.5% > [서] 9.9% > [연] 5.8% > [고] 0.3%'이다. 따라서 사용 비율 면에서는 '하십시오'형보다 '하세요'형의 경우에 여성 발화의 '-시-' 결합 비율이 조금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선어말 어미 '-시-'가 주체인 청자를 존대하면서도 종결 어미가 아닌 연결 어미나 관형형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가 [서]에 1회, [이]에 4회 나타난다.

(3) 가. 우리 집에 오셔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할까요? [서16]

나. 주문하신 가구를 가져왔습니다. [이3-3]

다. 똑바로 가시면 문이 있습니다. [이]3-1]

한국어 교재의 대화 텍스트에서는 이상의 예와 같이 선어말 어미 '-시-'를 청자에 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청자가 아닌 제3자가 주체인 경우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용법의 '-시-'는 [서] 4회, [연] 7회, [이] 10회로 총 21회 나타났다.

(4) 가. 형님이 무엇을 하세요? [서17]

나. 박 선생님이 가르치십니다. [연2-2]

다. 오늘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십니다. [이]14-2]

IV. 어휘적 경어법 사용에 대한 분석

본장에서는 호칭어 및 지칭어, 대명사, 명사, 조사, 동사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1단계 한국어 교재에서 어휘적 경어법 요소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호칭어 및 지칭어

상대 경어법을 사용할 때는 청자를 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호칭어와 청자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지칭어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어는 호칭어 및 지칭어가 섬세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1단계 한국어 교재에는 어떤 종류의 호칭어 및 지칭어가 사용되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1단계 한국어 교재에서는 '씨' 계열과 '-님' 계열의 호칭어 및 지칭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씨' 계열이 총 110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의존 명사 '씨'를 사용한 호칭어 및 지칭어로는 (5)와 같은 '이름+씨' 유

형과 (6)과 같은 ‘성+이름+씨’ 유형이 나타났다.

- (5) 가. 영진 씨, 집이 어디예요? [고9]
 나. 철수 씨는 뭘 할 거예요? [서22]
- (6) 가. 유인철 씨, 이 분은 신입 사원 마이클 스미스씨입니다. [이]4-2]
 나. 김미선 씨 좀 부탁합니다. [8-2]

상황에 따라 (5가)나 (6가)의 예처럼 호칭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5나)나 (6나)의 예처럼 지칭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각 교재에서 ‘씨’ 계열 호칭어 및 지칭어가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고]		[서]		[연]		[이]		합	
	호칭	지칭	호칭	지칭	호칭	지칭	호칭	지칭	호칭	지칭
이름+씨	6		5		1		34		46	18%
성+이름+씨	0		0		0		2		2	1%

〈표16〉 ‘씨’ 계열 호칭어 및 지칭어

〈표16〉을 보면 ‘이름+씨’ 유형은 네 가지 한국어 교재에서 골고루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름+씨’ 유형이 호칭으로 사용된 빈도와 지칭으로 사용된 빈도는 대체로 비슷하였다. 한편 ‘이름+씨’ 유형은 청자에 대해서 사용된 경우가 [고] 9회, [서] 13회, [연] 3회, [이] 65회로 총 90회이고, 제3자에 대해서 사용된 경우가 [고] 1회, [서] 1회, [이] 2회로 총 4회이므로 대부분 청자를 부르거나 가리키기 위하여 ‘이름+씨’ 유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⁵⁾

‘성+이름+씨’ 유형은 [연]과 [이]에만 나타났다. 호칭으로 사용된 경우보다 지칭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으며, 청자에 대해서 사용한 경우가 5회, 제3자에 대하여 사용한 경우가 11회였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지칭으로 사용된

25) ‘이름+씨’의 사용을 대화 참여자 요인 가운데 성별 요인과 관련시켜 보면 남성이 사용한 비율(8.6%)이 여성이 사용한 비율(5.7%)보다 약간 높았다.

경우가 좀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화의 상황 요인과 관련시켜 보면 전화 대화에서 사용된 경우가 9회였고 대화의 참여자 요인과 관련시켜 보면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사용된 경우가 13회였으므로, 이 유형이 전화 대화 상황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 많이 사용하는 유형이라는 점을 한국어 교재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접미사 ‘-님’을 붙여 청자나 제3자를 존대하는 경우는 총 16회 나타났는데, 직함 계열과 친족 명칭 계열로 다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²⁶⁾ 직함 계열은 ‘직함+님’, ‘성+직함+님’, ‘성+이름+직함+님’의 세 가지 유형이 사용되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직함+님’ 유형인 ‘선생님’이다. ‘선생님’은 [고] 2회, [세] 1회, [연] 1회, [이] 2회로 총 6회 사용되었는데, 지칭으로 4회, 호칭으로 2회 사용되었으며, 청자에 대해서 4회, 제3자에 대해서 2회 사용되었다. 모두 학생이 선생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7) 가. 선생님, 제 친구입니다. [이1-3]

나. 지금 선생님 계십니까? [고11-1]

‘성+직함+님’ 유형은 [고], [연], [이]에서 1회씩 총 3회 사용되었다. 학생이 선생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 사용하였는데, 청자에 대한 호칭으로 2회, 제3자에 대한 지칭으로 1회 사용되었다.

(8) 가. 이 선생님, 오래간만이에요. [고17]

나. 박 선생님이 가르치십니다. [연2-2]

‘성+이름+직함+님’ 유형으로는 ‘○○○ 선생님’이 2회, ‘○○○ 과장님’이 1회 사용되었다. ‘○○○ 선생님’은 [고]에서 1회, [이]에서 1회 사용되었고 ‘○○○ 과장님’은 [이]에서 1회 사용되었다. 그리고 모두 제3자에 대한 지칭

26) 직함 계열이나 친족 명칭 계열이 아니면서 접미사 ‘-님’이 붙은 경우는 ‘손님’이 [이]에 1회 나타났다. 그 예는 ‘손님 성함과 전화 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이7-2]’인데 이 경우는 청자에 대한 지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으로 사용되었다. 이 유형도 ‘성+이름+씨’ 유형과 마찬가지로 전화 대화에서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²⁷⁾

(9) 가. 거기 이인호 선생님 댁이지요? [고11-1]

나. 죄송하지만 김진미 선생님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이11-1]

다. 김민석 과장님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이11-2]

‘-님’이 친족 명칭에 결합한 예로는 ‘형님’이 1회, ‘부모님’이 3회, ‘어머님’이 2회 사용되었다. 교재별로는 [서]에 ‘형님’과 ‘부모님’이, [연]에 ‘어머님’이, [이]에 ‘어머님’과 ‘부모님’이 사용되었는데, 이 유형은 모두 제3자를 가리키는 지칭어로 사용되었다.

(10) 가. 형님이 무엇을 하세요? [서17]

나. 월슨 씨가 가면 부모님께서 참 좋아하실 거예요. [서27]

다.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6-1]

‘씨’ 계열이나 ‘-님’ 계열이 아닌 기타 유형으로는 부부 사이에서 사용하는 호칭인 ‘여보’가 [이]에서 1회 사용되었고, ‘아주머니’가 식당 종업원을 부를 때 [서]에서 1회, 파출부를 부를 때 [이]에서 1회 사용되었다.

(11) 가. 여보, 내 손수건 어디에 있어요? [이13-1]

나. 아주머니, 불고기하고 냉면 두 그릇 주세요. [서13]

한편 한국어에서 ‘선생님’은 교사로서의 ‘선생’을 높이는 말로도 사용되지만 ‘성이나 직함 따위에 붙어 남을 높여 이르는 말’을 의미하기도 한다.²⁸⁾

27)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직함+님’과 ‘성+이름+직함+님’의 사용 빈도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어법 관련 요소 중에서 이와 같이 빈도가 매우 낮은 것은 1단계 한국어 교재에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8) 교사를 의미하는 ‘선생’과 존대를 표시하는 ‘선생’의 구분은 한국어 교재 가운데

한국어 교재에서도 이러한 용법이 나타났는데, ‘선생님’의 유형으로는 [서]에 1회, [연]에 2회 사용되었고, ‘성+선생님’의 유형으로는 [서]에 2회 사용되었다.

(12) 가. 선생님 계십니까? [서11]

나. 한국은 눈이 많이 오는데 선생님 고향은 어떻습니까? [연7-3]

(13) 거기 김 선생님 댁입니까? [서11]

2. 대명사

경어법과 관련된 대명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저’이다. ‘저’는 화자 자신을 낮춤으로써 청자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1인칭 대명사인데, 1단계 한국어 교재에서는 [고]에서 1회, [서]에서 10회, [연]에서 9회, [이]에서 54회 사용되어 각 교재에서 골고루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4) 가. 저 토마스인데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고11-4]

나. 저도 역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연2-3]

다.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요. [이]15-1]

한편 ‘그 사람’을 아주 높여 이르는 3인칭 대명사 ‘그분’이 [연]에서 1회, ‘이 사람’을 아주 높여 이르는 3인칭 대명사 ‘이분’이 [이]에서 3회 사용되었다.

(15) 가. 그분이 누구입니까? [연2-3]

나. 이분은 신입 사원 마이클 스미스 씨입니다. [이]4-2]

[서10]의 ‘Notes’에만 보인다. 다른 교재에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명사

1단계 한국어 교재에서 경어법과 관련하여 사용된 명사의 높임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명사	높임말	빈도	예
집	택	[고] 1 [서] 1 [이] 1	거기 이인호 선생님 택이지요? [고11-1] 거기 김 선생님 택입니다? [서11] 거기가 이은주 씨 택입니다? [이]10-2]
사람	분	[서] 1 [연] 1	모두 세 분이세요? [서24] 키가 큰 분이 오빠입니다? [연6-3]
생일	생신	[이] 4	다음 주 일요일은 할머니 생신이에요. [이]8-3)
성명	성함	[이] 2	성함이 김수진 씨입니다? [이]12-3)
나이	연세	[이] 1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4-3)

〈표17〉 명사의 높임말

〈표17〉의 결과를 보면 ‘택’이 세 교재,²⁹⁾ ‘분’이 두 교재에서 사용되었고 나머지 ‘생신’, ‘성함’, ‘연세’의 명사들은 [이]에서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⁰⁾

4. 조사

경어법과 관련된 조사로는 주격 조사 ‘이/가’의 높임말인 ‘께서’와 부사격 조사 ‘에게’의 높임말인 ‘께’가 1단계 한국어 교재에서 사용되었다. ‘께서’는 [서]와 [이]에서 1회씩, ‘께’는 [서], [연], [이]에서 1회씩 사용되었다.

29) ‘택’은 전화 대화에서만 사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0) 이 명사들은 실제 대화에서도 빈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서상구 외 (1998)의 기초 어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1단계 한국어 교재에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 (16) 가. 월슨 씨가 가면 부모님께서 참 좋아하실 거예요. [서27]
 나. 할머니께 선물할 거예요. [이]8-4]

5. 동사

1단계 한국어 교재에서 높임말로 사용된 동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동사	높임말	빈도	예
있다	계시다	[고] 1 [서] 4 [연] 3 [이] 4	지금 선생님 계십니까? [고11-1] 고향에 누가 계세요? [서27] 지금 집에 안 계십니다. [연6-1] 김민호씨 계십니까? [이]2-2]
주다	드리다	[고] 1 [연] 2 [이] 2	먼저 힌트를 드릴게요. [고20] 몇 권 드릴까요? [연4-2]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9-2]
먹다	들다	[고] 1 [서] 2	자, 식기 전에 드세요. [고18] 커피 두 잔 드셨지요? [서26]
	잡수다	[서] 1	이 약을 잡숴 보세요. [서23]
	잡수시다	[연] 2	뭘 잡수시겠습니까? [연3-2]
말하다	말씀하다	[이] 2	이름과 주소를 말씀하십시오. [이]10-1]

〈표18〉 동사의 높임말

〈표18〉을 보면 동사의 높임말 가운데 한국어 교재에 비교적 고르게 반영되어 있는 것은 '계시다'와 '드리다' 정도임을 알 수 있다.³¹⁾ 나머지 동사들은 빈도도 낮고 반영되어 있는 교재도 한정되어 있어 1단계 한국어 교재에서 가르쳐야 할 만한 단어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³²⁾

이 외에 '-어 주다'의 높임말인 '-어 드리다'가 [서]에 1회, [연]에 1회, [이]에 2회 사용되었다.

31) '계시다'는 총 12회 중 전화 대화 상황에서 9회 사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2) '들다, 잡수다, 잡수시다, 말씀하다'는 서상규 외(1998)의 기초 어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17) 가. 네, 얼마를 바꿔 드릴까요? [서 29]
 나.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연10-4]
 다. 제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13-3]

V. 맷음말

본고는 1단계 한국어 교재의 대화 텍스트에서 경어법 관련 요소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총 135 텍스트, 1,356 문장, 4,582 어절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상대 경어법, 주체 경어법, 어휘적 경어법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대 경어법의 등급별 사용 양상을 교재별로 비교하면 해요체를 더 많이 사용한 것은 [고]와 [서]이고 합쇼체를 더 많이 사용한 것은 [연]과 [이]이다. 합쇼체와 해요체의 사용 비율 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고](90.6%)이고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인 것은 [이](9.9%)이다. 따라서 [고]의 경우 해요체 위주로 대화 텍스트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의 경우 합쇼체와 해요체가 비교적 대등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대 경어법을 대화의 상황 요인과 참여자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상황 요인은 근접 대화 상황과 전화 대화 상황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고], [서], [이]에서는 합쇼체의 경우 전화 대화에서의 사용 비율이 높고 해요체의 경우 근접 대화에서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연]에서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대화의 참여자 요인은 크게 친분 요인과 성별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친분 요인은 아는 사람과의 대화와 낯선 사람과의 대화로 나누어 검토하였는데 [고], [연], [이]에서는 합쇼체의 경우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사용 비율이 높고, 해요체의 경우 아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사용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서]에서는 친분 요인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 요인은 남성 발화와 여성 발화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연]과 [이]에서는 합쇼체의 경우 남성 화자의 사용 비율이 높고 해요체의 경우 여성 화자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고]와 [서]에서는 성별 요인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체 경어법 사용을 분석한 결과 1단계 한국어 교재의 대화 텍스트에서 는 선어말 어미 '-시-'가 청자에 대한 존대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가 많았다. [고], [세], [이]에서는 해요체에 '-시-'가 결합한 비율이 더 높았으나, [연]에서는 합쇼체에 '-시-'가 결합한 비율이 더 높았다. 대화의 상황 요인과 관련시켜 분석해 보면 합쇼체에 '-시-'가 결합되어 사용된 비율은 근접 대화에서 높았고, 해요체에 '-시-'가 결합되어 사용된 비율은 전화 대화에서 높았다. 대화의 참여자 요인과 관련시켜 분석해 보면 친분 요인의 측면에서 는 아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보다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시-'가 더 높은 비율로 결합되어 사용되었고, 성별 요인의 측면에서는 남성 발화보다 여성 발화에서 '-시-'가 더 높은 비율로 결합되어 사용되었다. 대화의 상황 요인이나 참여자 요인과 관련된 주체 경어법의 사용 경향은 네 교재에서 모두 일치하였다.

어휘적 경어법 요소 가운데 1단계 한국어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 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호칭어 및 지칭어로는 '이름+씨' 유형과 '직 함+님' 유형, 대명사로는 화자 자신을 낮추어 청자를 높이는 1인칭 대명사 '저', 높임의 명사로는 '댁', 높임의 동사로는 '계시다, 드리다' 등이 각 교재에 서 비교적 고르게 사용되었다.

1단계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경어법 사용 양상을 검토하면 전반적으로 는 위와 같은 경향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교재별로는 사용 양상 이나 비율 면에서 많은 편차를 보여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접하게 되는 대화 텍스트에서의 경어법 사용 양상은 실제 대화에서의 경어법 사용 양상과 많이 다를 수 있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대화를 습득하는 것이 한국 어 교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실제 한국어 대화 텍스트의 경어법 사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한국어 교재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현정(2001), 대화의 기법, 개정판, 경진문화사.
- 김명운(1996), “현대한국어 청자대우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드라마 대본 (1978~1994)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청자 대우 표현”, 남천 박 갑수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월인.
- 김제열(2001), “한국어 교육에서 기초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 연구”,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영순(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수정판, 월인.
- 박용익(2001), 대화분석론, 개정증보판, 대화분석연구총서 1, 역락.
- 백봉자(1999), “서양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서상규·남윤진·진기호(1998), 기초 어휘 빈도 조사 결과, 한국어 세계화 추진 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1차년도 결과 보고서 오,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 심재기·문금현(200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연구: 구어 텍스트의 활용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17, 이중언어학회.
- 안경화·김정화·최은규(2000),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 방향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상억(1998), “외국인용 한국어 교재에 포함된 문법 사항의 비교 평가”, 한국어 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민음사.
- 이정복(1998), “상대 경어법”,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 이정복(2002), 국어 경어법과 사회언어학, 월인.
- 조현용(1999), “한국어 어휘의 특징과 어휘교육”, 한국어교육 1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